

6·4 지방선거 확대경

‘전남 기초長’ 무소속 돌풍 얼마나

# 새정치 구태공천... 최대 10명 당선될 수도

여수·순천 등 현직후보 많아

새정치연합과 치열한 접전

단일화·연대엔 파괴력 배가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남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어느 정도 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종 구태를 보여주면서 광주·전남지역민들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2명 중 최대 10여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김충석(여수)·노관규(순천)·이성웅(광양)·전완준(화순)·허남석(곡성)·황주홍(강진)·박우량(신안) 후보 등 7명이 민주당 소속의 오현섭·조보훈·서종식·구종근·조형래·강진원·김성중 후보를 각각 누르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에 유리한 공천방식을 채택하면서 유력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원칙 없는 공천기준과 우왕좌왕 공천 심사, 자기 몫 챙기기 등 구태를 반복, 4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적게는 3~4명에서 최대 10여명까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신안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현 군수가 후보 사퇴를 해 무조건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다.

여기에 전남 동부권은 무소속 바람이 거센 편이다. 순천(조충훈)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김충석)와 광양(정현복·정인화) 등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력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순천과 여수

는 현직 시장이어서 더욱 기세등등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온 나주(임성훈)·영암(김일태)·곡성(허남석) 등 3곳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화순(임호경·전형준)·구례(전경태)·장성(유두석)·진도(박연수) 등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에서처럼 무소속 연대가 펼쳐질 경우,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 어느 선거보다 강력한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동부권의 한 무소속 후보 측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 연대가 시너지 효과를 불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정당의 막강한 지원에 맞서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거리 나갈 준비 마친 유세부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광고업체에서 선거 유세차량에 쓰일 부스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선거 도전 광주·전남 공직자 ‘새정치 공천’

## 광주시 출신 10명중 2명 전남도 출신 11명중 6명

6·4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광주시와 전남도 출신 공직자들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출신 공직자의 공천율은 20%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 출신은 절반 이상(55%)이 공천을 받았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에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광주시 공직자 출신은 모두 10명으로,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광주시 출신은 광주 동구청장 공천장을 획득한 노희용 전 광주 시문화관광정책실장과 서구청장 공천장을 떠난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2명(20%) 뿐이다.

관선 광주시장을 지낸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선 없이 윤장현 후보를 전락 공천해 무소속으로 출

마했으며, 전 광주시 서구구청장을 지낸 김종식 현 서구청장은 경선에서 떨어져 불출마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인 신광조 서구청장 후보는 경선 탈락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김삼철 전 광주시립도서관장이 경선에 참여했다가 최영호 현 남구청장에게 밀려 탈락한 뒤 불출마했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정선수 전 광주시공무원교육원장이 출마를 선언

했다가 중도 포기했으며, 서중진 전 광주시 광산부구청장과 송병태 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은 경선에서 민형배 현 광산구청장과 맞붙어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경선률에 따라 불출마했다. 송귀구 전 광주시행정부시장은 무소속으로 고홍균 수 선거에 출마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출신 공직자들은 모두 11명이 출마해 6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았다. 송광은 전 전남도행정부지

사는 광주 북구청장 공천을 따냈고, 김양수 전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은 장성군수 공천장 확보에 성공했다. 또 이명흠 전 장흥 부군수는 장흥군수, 강진원 전 전남도 기업도시단장은 강진군수, 신우철 전 진도 부군수는 완도군수,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진도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

반면 배용태 전 전남도행정부시장은 목포시장 경선에서 탈락했고, 민중기 전 전남도의정지원관도 화순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불출마했다.

정인화 전 광양만청 행정개발본부장은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나섰으며, 최영렬 전 전남도종합민원실장은 무소속 영암군수, 장경록 전 강진읍장은 무소속 강진군수 후보로 나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기억의 저장...그림의 기원은 그리움



(72) 그리움

그림은 누가 최초로 발명했을까? ‘서양미술사’의 저자 고프리치(1909~2001)는 라스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회화의 기원을 찾는다. 르네상스 시대 최초로 회화를 위한 실용서인 ‘회화론’을 펴낸 알베르티(1404~1492)는 나르시스를 ‘회화의 발명자’로 꼽는다. 연못의 수면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회화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림은 그리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림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난 후에도 그리운 사람을 우리 눈앞에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 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그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신적 능력’을 지녔다.

고대의 화가들은 그림자의 윤곽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백과사전의 시조라 할 ‘박물지’를 저술한 플리니우스는 코린토스의 웅기장이 딸이 전쟁터로 떠나게 된 연인의 모습을 호롱불에 비친 그림자의 윤곽선으로 그려냈다는 일화를 통해 회화의 기



르노 작 '미술의 기원'

원을 기록한다. 이 주제는 서양 미술에 종종 등장한다.

장 바티스트 르노의 ‘미술의 기원 : 양치기의 그림자를 더듬어가는 디부타데스’(1786년 작)는 이별을 앞둔 여인이 자기 애인을 그림으로나마 간직하기 위해 벽면에 비친 연인의 그림자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여자의 손길이 얼마나 애절한가. 남자가 떠나도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바라보던 빛, 곱슬거리는 머릿결, 듬직한 어깨가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심정은 연인과의 이별을 앞둔 여인의 슬픔과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의 가슴에 묻은 아들 딸은 세월을 따라 스러지기도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하게 살아나는 기억일지 모르다. 잊을까봐 그림으로 잡아두지 않아도 호롱불에 비친 그림자의 윤곽선으로 그려냈다는 일화를 통해 회화의 기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경선보다 쉬운 본선’...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 “윤장현 후보 등 지원 유세 나설 것”

전국 최대 득표율도 노려

6·4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등 같은 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과는 달리, 본선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이 후보 측은 내친김에 전국 최대 득표율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박병·열세 지역의 같은 당 후보의 ‘구원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이낙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보탬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윤장현 광주시장을 위해서도 지원 유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등의 지지와 지

원은 흔하지만 광역단체장 후보가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여서, 이 후보의 윤장현 후보 지원 유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광역단체장 후보는 같은 당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같은 당 기초단체장 등의 도움을 받아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반대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도 광역단체장의 ‘후광’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이 후보의 완승이 점쳐지면서 이 후보의 도움을 요청하는 같은 당 후보들이 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 한 인사는 “전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이 1차 목표이며, 이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광역시시장선거 무소속

#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용섭은 김대중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중용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정치와 정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 광주의 경제와 민생을 되살릴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오직 이용섭 뿐입니다.

광주가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광주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또다시 광주다운 선택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우뚝 세우고  
**광주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정의로운 경제시장

# 이용섭6

